

문자심포지아 2016: 그리하여, 낙원

WORLD SCRIPT SYMPOSIA: PARADISE, LOST



문자심포지아 2016: 그리하여, 낙원

그리하여, 낙원 PARADISE, LOST

2016년 10월 3일(월) – 10월 9일(일)

서울시 종로구 낙원상가

■ 기획

바이스버사

Ab Group (김종범, 이해연)

■ 공동기획

아키타입 (이지원)

■ 프로덕션 매니저

Ab Group (김종범, 이해연)

■ 책임편집

이경희

■ 참여작가

로와정

바이스버사

앤소피 샌달 (Annesofie Sandal)

Ab Group (김종범, 이해연)

주최 (사) 세계문자연구소, 종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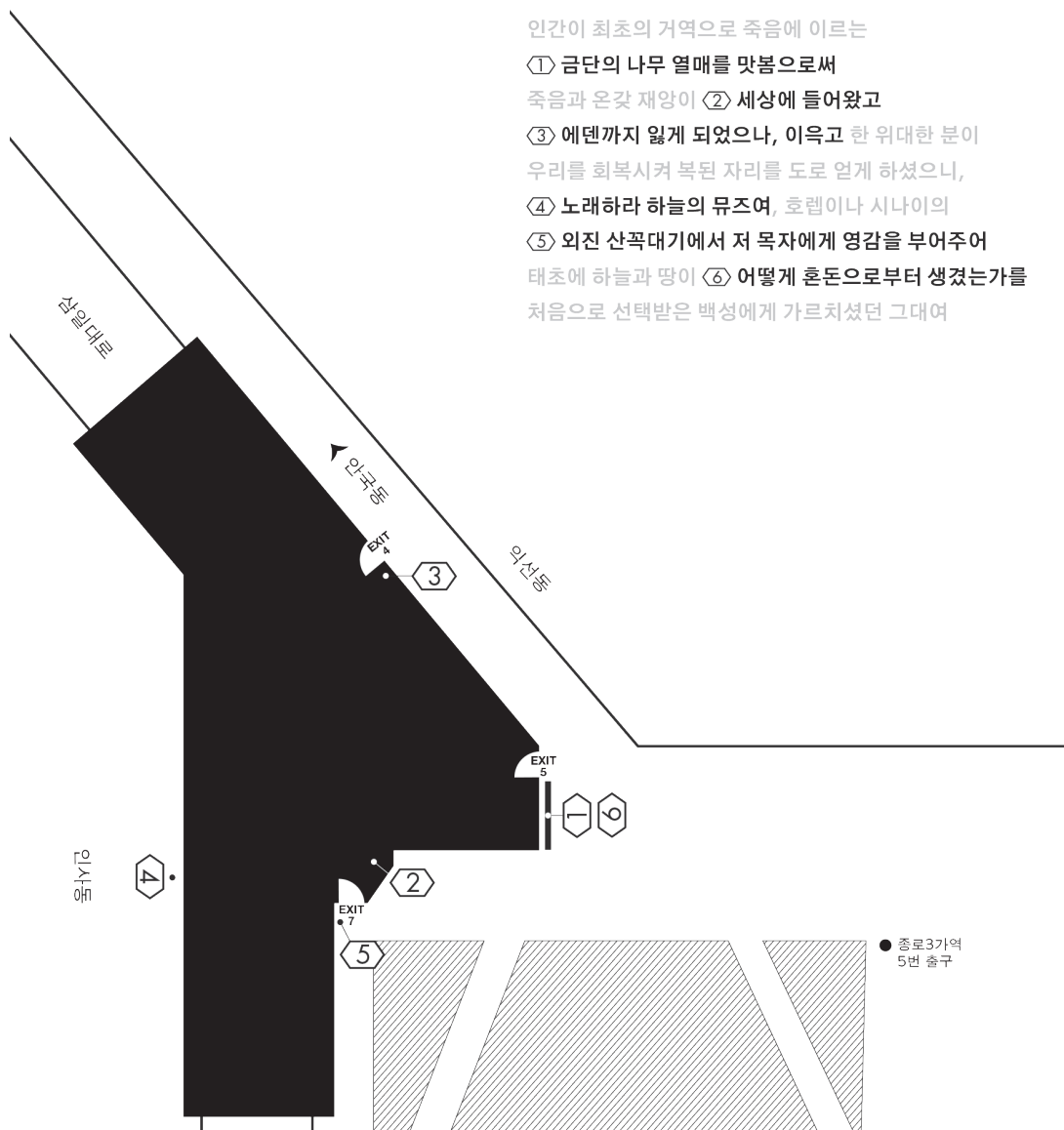
주관 바이스버사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문자심포지아 2016: 그리하여, 낙원

〈그리하여, 낙원〉프로젝트가 이번에 선보이는 주요 작업들은 밀턴의 〈실낙원〉의 일부를 작품명으로 치환했다. 〈실낙원(失樂園, Paradise Lost)〉(1667)은 구약성경을 소재로 쓰인 장편 서사시로,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희망을 거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애초의 작업들이 〈실낙원〉을 모티프로 출발한 것들은 아니며, 각각의 고유 맥락을 지니고 있으나, 그럼에도 밀턴의 작품을 발췌한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하나는 '낙원상가'가 악기 상가로서 익숙한 보통명사가 되면서 그간 잊혀진 상가의 본래 성격과 역사와 사람들의 욕망을 보여주는 '낙원(paradise)'을 불러들이려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는 잊혀지거나 가치 절하된 어쿠스틱과 건축물로서의 낙원상가를 〈그리하여, 낙원〉을 통해 또 하나의 장소로서, 또 하나의 순간으로서 낙원을 재현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잃어버린 낙원은 이번 〈그리하여, 낙원〉을 통해 그리하여 잠시나마 낙원이 되어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낙원〉에는 깃발(Flag), 트라이비전(Trivision), 틴셀 커튼(Tinsel Curtain), 표지판(Signs), 네온사인(Neon Sign), 그리고 콘페티 (Confetti)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설치작업과 퍼포먼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통해 낙원과 주변의 경계, 장편 서사시의 문자가 오늘날의 작품과 만나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예술적 공존을 실험한다.



문자심포지아 2016: 그리하여, 낙원

그리하여, 낙원 Paradise, l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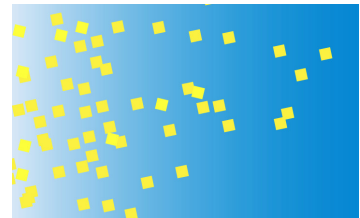
Project 1. 어떻게 혼돈으로부터 생겼는가를

뉴욕과 코펜하겐에서 활동하는 설치예술가 앤소피 샌달은 한국계 입양아로 덴마크에서 성장하면서 '정체성'에 관한 주제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색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이번 <그리하여, 낙원>에서 '경계성'에 대한 그 만의 관점을 새로운 플래그 작업으로 선보인다. 이는 낙원상가의 동(東)쪽 파사드에 설치될 예정이다.



Project 2. 세상에 들어왔고

<Project 2. 세상에 들어왔고>는 기존 정보 전달의 간판형 조형물에서 나아가 3가지 면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트라이비전의 형태이다. '무경계'와 '낙원'이라는 주제를 담은 색면과 문자의 조각들이 움직이는 이 3가지 장면은 그래픽 디자이너 여혜진의 작업으로 낙원상가 2층, 201호에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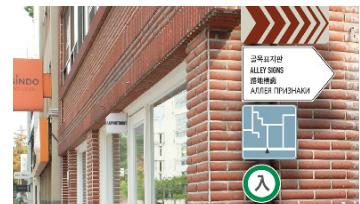
Project 3. 금단의 나무 열매를 맛봄으로써

<Project 3. 금단의 나무 열매를 맛봄으로써>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플래그 작업을 선보이는 앤소피 샌달과 바이스버사, 무학사(손정민)의 공동 작품이다. 틴셀(tinsel, 트리장식 등에 사용되는 반짝이 비닐)을 겹겹이 쌓아 제작되는 이 틴셀 커튼은 축제의 현장에서 바람에 흔들리며 낙원상가의 파사드에 새로운 풍광을 제시한다.



Project 4. 에덴까지 잃게 되었으나, 이윽고

이 계단표지판은 낙원상가 방문객을 위한 표지판 시스템을 설치하여 네트워크상의 정보가 아닌 상가 내부에서 문자를 느끼며 산책할 수 있게 유도한다. 상가 4번 출입구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만날 수 있다.



Project 5. 외진 산꼭대기에서 저 목자에게 영감을 부여주어

우리와 비슷한 듯 보이는 외모이지만 생활과 문화, 언어가 확연히 다른 아시아 내 다른 나라들의 문자를 빌어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평등함'을 이야기하는 네온사인 작품이다.



Performance. 노래하라 하늘의 뮤즈여

이 퍼포먼스는 본 행사 중 낙원상가 201호에 설치될 바이스버사의 트라이비전 작품과 함께 상가 곳곳에 혼재하는 문자의 조각들이 흩날리듯, 세계문자심포지아와 낙원상가에 새로운 풍광을 제시할 것이다.

다큐멘테이션

한시적인 예술 행사이지만 준비과정과 결과를 웹사이트와 영상작품으로 예술적 재해석을 시도하고, 추후 온라인 아카이브(기록, 자료)로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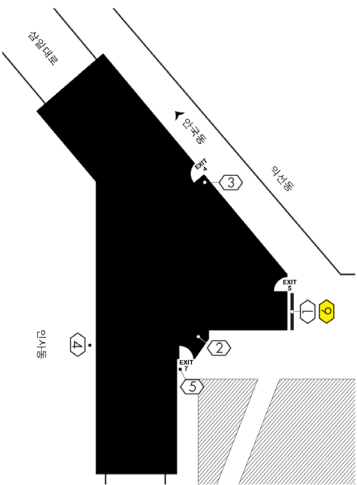
Project 1. 어떻게 혼돈으로부터 생겼는가를

Site 낙원상가 동(東)출입구 파사드
Artist 앤소피 샌달 (Annesofie Sandal)

앤소피 샌달은 코펜하겐 덴마크왕립예술학교에서 순수미술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Charlotte B. Johansen, Christina Hamre, Nanna Starck과 'Island Life'라는 팀으로 뉴욕과 코펜하겐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앤소피 샌달은 한국계 입양아로 덴마크에서 성장하면서 '정체성'에 관한 주제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색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이성적인 것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무언가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면서 인간과 자연간의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인 사건과 모티브를 다룬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인간의 행동양식이 어떻게 역사와 유산에 영향을 끼쳤으며, 문화 자본이 인간과 대지, 자원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그의 작업은 과연 우리가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에 심리학적, 생리학적, 사회학적으로 적응했는지 혹은 우리 스스로와 타인,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되지는 않았는지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보다 나은 공존의 방식을 찾기 위해 현실에 대한 현재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문자축제에서 '경계성'에 대해 그만의 관점을 새로운 <플래그>작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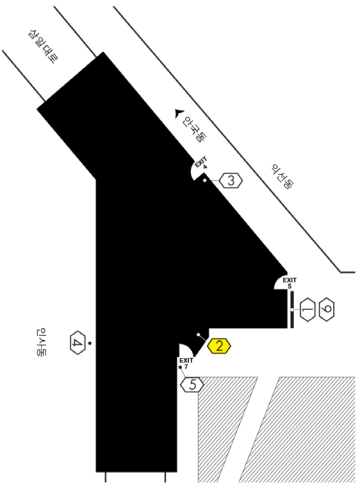


Project 2. 세상에 들어왔고

Site 낙원상가 2층 201호
Artist 바이스버사 (그래픽 디자인: 여혜진)

Project. 2의 트라이비전은 2015 세계문자심포지아에서 선보였던 빌보드 작업의 연장선으로 기존 정보 전달의 간판형 조형물에서 나아가 예술적 성격이 가미된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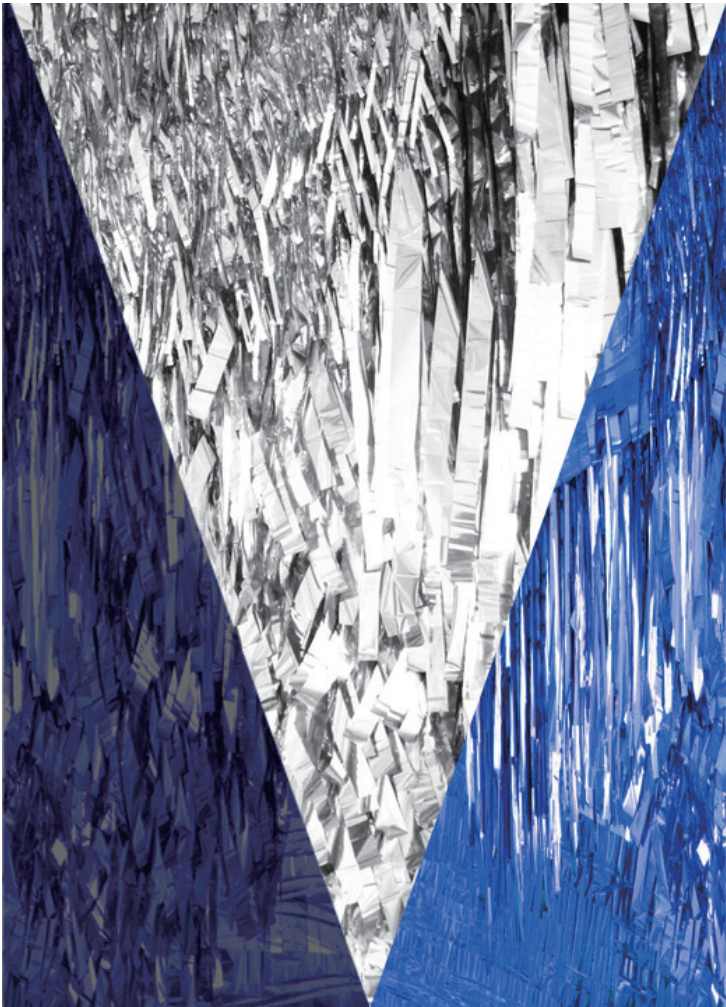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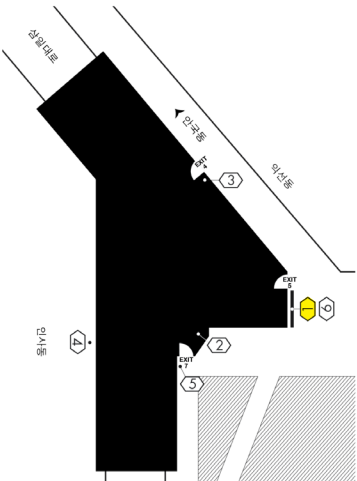
세계문자심포지아 2016 <그리하여, 낙원>에서의 이 <Project 2. 세상에 들어왔고>는 낙원상가와 익선동 일대의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무경계'와 '낙원'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해석하여 그라데이션 색면과 중첩된 문자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도록 구현된 이 트라이비전은 축제의 현장에서 훑날리는 역동적인 문자의 조각들을 구성한다.



Project 3. 금단의 나무 열매를 맛봄으로써

Site 낙원상가 동(東)출입구 파사드
Artist 앤소피 샌달 (Annesofie Sandal) X 바이스버사 X 무학사(손정민)

〈Project 3. 금단의 나무 열매를 맛봄으로써〉는 패브릭 배너 위 틴셀(tinsel), 트리장식 등에 사용되는 반짝이 비닐)을 겹겹이 쌓는 형식으로 제작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플래그 작업을 선보이는 앤소피 샌달과 바이스버사, 무학사(손정민)의 공동 작품인 이 프로젝트는 축제의 현장에서 바람에 흩날리며 낙원상가의 파사드에 새로운 풍광을 제시한다.



Project 4. 에덴까지 잃게 되었으나, 이윽고

Site 낙원상가 4번 출입구 내부 계단

Artist Ab Group (김종범, 이해연)

작업배경: 표지판은 도로 위 차량에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며, 순수한 도형과 색상 그리고 문자로 이루어진 공공 시설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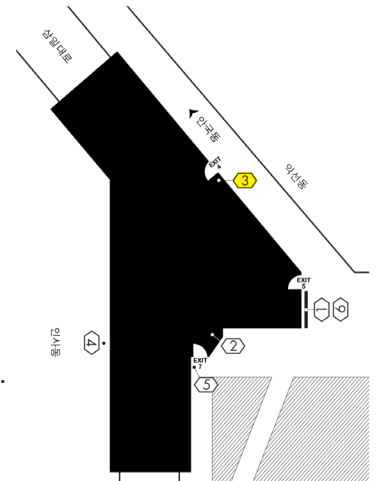
같은 구조로 낙원상가 방문객을 위한 계단표지판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곳이 처음이라 낯선 이들도 어려움 없이 걸을 수 있게 돕는다.

네트워크상의 정보가 아닌 상가 내부에서 문자를 느끼며 산책할 수 있게 유도한다.

작업내용: 이방인을 위한 계단표지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 회화문자(Pictogram), 표의 문자(Ideogram), 표음 문자(Phonogram)를 포괄한다.
- 보행자에게 계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주의, 규제, 지시, 보조의 정보를 전달한다.
- 주요 색상은 계단의 주변환경을 반영한다.
- 못을 박지 않고 설치하며 이후에 깨끗이 제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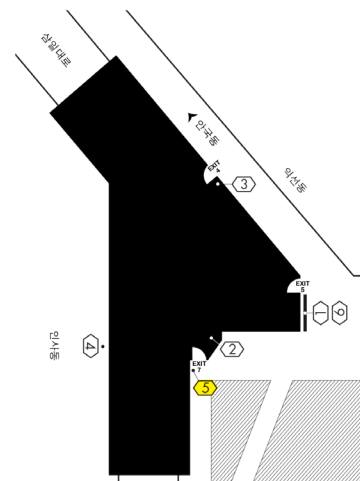


Project 5. 외진 산꼭대기에서 저 목자에게 영감을 부여주어

Site 낙원상가 7번 출입구 캐노피

Artist 로와정 RohwaJeong

우리와 비슷한 듯 보이는 외모이지만 생활과 문화, 언어가 확연히 다른 아시아 내 다른 나라들의 문자를 빌어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평등함'을 이야기한다. 한옥 지붕 위에 떠 있는 형상은 부탄/티베트의 문자이다. 이 읽을 수 없는 생소한 문자는 특정 기호나 추상의 형태로 다가온다. 이는 프랑스 예술가 로베르 필리우(Robert Filliou)의 "bien fait, mal fait, pas fait (잘하기, 못하기, 안 하기)"를 프랑스 미술비평가이자 미술사학자인 파스칼 리우(Pascale Riou)가 재해석한 문장으로, "The equality of doing and not doing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평등함)"이라는 뜻이다. 미지의 문자는 먼 나라의 문화와 시대성을 상상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현재를 사유하게 만든다.



Site	낙원상가 2번 출입구 쪽 거리
Date	2016년 10월 5일
Artist	바이스버사(Vice Versa) X 방문객과 지역민



문자심포지아 2016: 그리하여, 낙원



바이스버사 vice versa

바이스버사는 전시기획을 비롯해 동시대 예술 중에서도, 특히 미술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출판기획,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교육과 문화 전반에 걸친 기획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아티스트 에디션을 제작하는 등 예술가, 디자이너, 건축가 등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앤소피 샌달 Annesofie Sandal

앤소피 샌달은 코펜하겐 덴마크왕립예술학교에서 순수 미술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다수의 갤러리와 미술관에서 전시한 바 있다.

archetypes

아키타입 (이지원 Jiwon Lee)

이지원은 산업디자인을 전공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율디자인랩의 연구원으로 한국 디자인 구술사를 연구하고 있다.



로와정 RohwaJeong

로와정은 2007년 노윤희, 정현석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의 작업은 지금의 공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새롭게 구성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관심사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Ab Group

Ab Group (김종범, 이해연 Jongbuhm Kim, Hyeon Lee)

Ab Group은 디자인그룹 노네임노샵 중 김종범, 이해연 2인이 결성한 스피노프 팀으로, A와 b라는 두 가지의 생각과 의미를 병렬로 전달한다. 하나의 소리를 내는 집단이 아닌 복수의 소리를 내는 개인들이고자 한다.